순천시 전남 지자체 첫 '예산 1조시대' 연다

내년 1조22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전년보다 9.9% 증가

시청사 신축·호남권직업체험센터 건립 등 본격 추진키로

순천시가 전남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본예산 1조원대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시는 22일 "내년도 예산 1조 22억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9.9%인 90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본예산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전남도내 자치단체 중 최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일반회계가 930억원이 증가한 82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7억원 감소한 1759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1139억원, 세외수입 472억원, 지방교부세 2960억원, 조정교부금 215억원, 국도비 보조금 2877억원, 보전수입 600억원이다.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신규 사업을 등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도 올해 2586억원보다 11% 증가한 2877억원을 확보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은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가 올해보다 63억원이 늘어난 2551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5억원이 증가한 952억원,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429억원이 늘어난 847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5억원이 증가한 589억원, 교육분야는 157억원이 늘어난 356억원, 산업분야는 100억원이 증가한 220억원 등이다.

또 문화관광 분야와 환경 분야는 전년과 비슷한 173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요 도로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36억원이 감소한 1448억원을 편성했다.

또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순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조성 100억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172억원, 주요 공공시설 마무리를 위한 정원지원센터 20억원, 왕조 1동 및 삼산동 주민센터 30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15억원, 보훈복지회관 17억원, 노인회관 및 직장어린이집 26억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랫장 지중화 20억원, 도심내 고압선로 지중화 타당성 조사 3억원 등이 반영됐다.

또 순천형 복지 추진을 위해 저소득층 교복구입비 지원 3억원, 출산장려 정책으로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운영 1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 대상자 확대 지원 5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도농균형발전을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조성 10억원과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건립 25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내년 예산편성은 시민 행복 제1의 도시 완성과 아시아생태문화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21세기 성장동력인 문화 콘텐츠 확충사업 및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순천형 복지시책의 추진에 예산을 집중 배분했다"면서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사전심사와 사후 성과 평가를 철저히 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 해금골드키위 30t 올 첫 일본 수출

지난해 일본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린키위에 이어 순천 해금골드키위가 올해 처음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 APC(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해금골드키위 30톤(1억3000만원 상당)이 일본으로 수출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순천의 해금골드키위는 현재 18농가에서 6.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린키위(헤이워드)보다 소득이 높아 재배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해금은 2007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국내 품종으로, 외국산인 제스프리에 비해 재배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없는데다 당도는 더 높으면서 신맛이 적어 품종 선호도가 높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순천 APC는 순천을 비롯한 광양, 보성, 장흥, 해남, 고흥군의 골드키위 70톤을 추가로 선별해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순천시는 지난해에도 그린키위(헤이워드)를 37톤 수출한 바 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만정원 달빛 서정

국제자연환경미술제

작품 '만천명월' 눈길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가 열리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WWT 습지'에 환한 달이 떠올랐다. 낙원유람을 주제로 한 야외설치전의 작품 중 하나인 허강의 '만천명월'〈사진〉이다. 순천의 자연과 달, 쪽배가 어우러져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잊은 지 오래인 달빛의 서정성을 전해주고 있다.

한편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는 12월 18일까지 열리며,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일원에서 야외 설치전, 실내전시, 퍼포먼스 등 다양한 전시작품을 선보인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서 수험생 스트레스 푸세요"

30일까지 특별이벤트

순천만국가정원이 올해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30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운영하는 특별 이벤트인 '국가정원에서 관람차를 타고 포토존의 꽃문을 통과하면 행운이 온다'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해 수험생의 꿈을 응원하고 그동안 수험준비로 쌓인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원 입구에서 관람차를 타고 생태체험장의 포토존으로 이동해 행운의 꽃문 통과 및 포토타임을 갖고, 프랑스정원으로 이동한 후 갯지렁이갤러리에서 에코컵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에코디자인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국제습지센터 1층)에서는 수험생의 휴식을 돕고 다양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원힐링프로젝트, 초청특강 및 진로직업체험이 별로도 운영된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급별 졸업여행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안전지도사와 체험학습 지도자를 배치하고, 도슨트와 함께하는 정원문화와 생태, 자연과 정원관련 진로에 대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061-749-2863,2864)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만정원 올해도 관람객 500만명 돌파

순천시는 "지난 17일 오후 2시께 순천만국가정원의 올해 관람객이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기록한 500만명 입장은 지난 10월 20일에 집계된 400만명 이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500만명 돌파 시점보다 3일 앞섰다.

순천시는 이 같은 기록이 제16회 순천만 갈대축제의 영향과 가을 관광 명소로 떠오른 순천의 높아진 위상 덕분으로 분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한 가을 여행주간(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에 국내 주요 관광지 관광객 조사에서도 순천만과 국가정원에 35 명이 다녀가 단일 관광지로는 전국 최고의 관광객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500만 번째 관람객으로 입장한 정석호(26·부산시 사하구)씨는 "신이 선물한 듯한 아름다운 천연자원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이런 행운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의 높아지는 위상만큼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비롯한 화려한 야간경관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호수도서관 내일 김준선 교수 초청 생태인문학 강좌

생태 특성화 도서관인 순천조례호수도서관은 "24일 순천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김준선 교수를 초청해 생태 인문학 강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조례호수도서관 3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우리(순천)시 자연의 생태적 가치'를 주제로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었던 순천시의 생태적 가치와 이를 통한 도시 발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앞으로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날 강좌에 앞서 3명의 주부로 구성된 레인보우팀의 멋진 통기타 연주도 예정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호수도서관(061-749-8891)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